



## 정론

##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류다른 불이다.

사나운 겨울을 뛰어 잡아 새 송리의 만리주로를 엘어놓은 위대한 인민의 자부와 궁지가 강산에 넘치는 뜻깊은 이 불.

올해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일흔돐을 맞이하게 됐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세계에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운 위대한 인민이 자기 국가의 창건 일흔돐을 성대히 기념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의의깊은 일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가슴을 울린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세대가 살아왔던가. 우리는 사랑하는 조국을 전략국가의 지위에 안아올린 궁지높은 세대이다. 그 고난과 저우의 궁지를 알고 공화국 창건 일흔돐의 경축 광장을 향해 노도는 청진군민의 심장의 열기로 후대운 조국강산, 이 시대의 숨결은 『위대한 어머니조국을 위하여!』이다.

1

붉은 쇠풀이 사포처럼 끓는다.

어제는 활터에서, 오늘은 또 김집에서 가슴후련하게 떠져오는 주체 청진생의 장쾌한 퇴성.

기새 차게 폭포치는 주홍빛 쇠풀을 바라보니 뜻깊은 올해에 금속공업이 통장훈을 불려야 한다는 당의 호소를 받았고 9월의 경축 광장을 향해 시대의 맹 앞장에서 달리는 용감한 우리 강철건설사들의 심장의 열기가 한 가슴에 미쳐온다.

강철로 당을 움직이면 전세대들처럼 금속공업전선의 기적적 승리를 공화국 창건 70돐을 빛내이자, 이것이 우리 강철건설사들의 가슴마다에 놓아온다. 활화전선은 활화같은 물길이다.

파학전선의 기세도 간단치 않다. 뜻깊은 올해의 첫 현지지도로 국가과학원을 찾았을 때에는 원수님의 과학원을 같은 마음에 눈부신 학기적 승리를 보았지만, 당시에는 뜻깊은 광학기술사전에 충돌기한 우리의 미더운 파학자, 기술자대군이다.

우리도 몇몇 한승의 보고안과 9월의 광장을 들어서자,

이번 목표를 알고 노동전선이 들끓고 활동의 날을 향해 백열전을 벌리는 삼지연군과 함께 남에게 안관광지구 건설장과 함께 남도물길 2단계 광산사업이 부글부글 끓는다.

온 조국강산이 열정의 불덩이이다. 9월의 경축 광장을 향하여!

누구의 가슴에서나 뿐고 어느 초소, 그 어느 일터에서나 후텁지기 따오르는 이 열기가 바로 오늘 우리 조국 광의 가장 력력한 민심이고 거세한 숨결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일부번영을 위한 뿐만 아니라 인민의 세기적번영을 위한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뿐만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물을 관찰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입니다.』

조국을 위하여!

이처럼 천만의 가슴을 울리는 뜻깊은 부름은 없다. 이 부름 앞에 설 때처럼 심장이 높뛰고 이 부름이 강산을 진감할 때처럼 격동적인 시기는 없다.

9월의 경축 광장을 향하여!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위대한 어머니조국을 위하여!』이다. 역사에는 인민의 애국심이 거세차 분출되는 계기들이 있다. 흔히 조국전쟁과 같은 시기가 그러하다. 비록 포장은 울리지 않아도 오늘 이 땅에 굽이치는 천만의 애국열기는 참으로 드립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는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 제일로 위대하고 귀중한 어머니 조국의 생일 70돐이다.

조국과 매인간과의 관계는 어머니와 아들과 같다 말할 수 있다.

인간은 풍기와 물이 없이 살수도 없이 조국이 없는 살수 없다. 그래서

설을 즐기는 가장 큰 설을 막국노의 설을 즐기는 말도 생겼고 나마라는 백성은 상가집과만 못하다는 견인도 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조국에 대한 감정은 단순히 테를 묻는 땅에 대한 애착이 아니다.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이는 바로 이 세상으로 위대하고 귀중한 운명의 품에 대한 이 나라 천만인들을 위한 조국의 모습이 안겨온다.

사회주의에 국공포자, 공화국 창건 7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조국이 안겨준 이 고귀한 친호를 인생의 값높은 재부로 받아안은 참된 인간들의 모습은 얼마나 고결한가.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위대한 나의 조국!

만방에 빛을 뿐리는 내 조국의 장모습은 안겨온 우리의 마음속에 위대한 조국을 위해 한생을 빛내인 애국자들의 모습이 안겨온다.

사회주의에 국공포자, 공화국 창건 7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조국이 안겨준 이 고귀한 친호를 인생의 값높은 재부로 받아안은 참된 인간들의 모습은 얼마나 고결한가.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에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 백 절 불굴의 공격정신으로 조국의 대지를 놓 혀 간다

홍건도간석지 2단계 건설장에서

## 심장을 바치자 어머니 조국에!

평안북도간석지 건설총합기업소 일군들

과 동계급이 혁명적

인 풍물세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높이 받들고 신나같이 펼쳐나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파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정신력을 날길없이 폭발시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끝없는 흥분속에 받아온은 종합기업소 일군들은 건설속도를 최대로 앞당길 방도를 찾아 방조제로 나갔다.

사설 3 200여m의 험재제방과 6 000여m의 1호방조제를 쌓아 천수백정보의 세력을 염두에 하는 홍건도간석지 2단계 1구역 1차물막이공사를 모든것이 부족한 조건에서 기槐한에 앞당긴다는 것은 훤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기사장 서원길동무를 비롯한 현장지휘부 일군들과 동지들의 불같은 토로가 그들의 가슴을 풍울려주었다.

《우리아 당시에서 용감한 비단의 정복자, 백발불구의 투사로 내세워준 대제도 기적의 창조자들이 아닙니까!》

경사로운 9월의 명절전으로년간 공사계획을 앞당겨 완수할 대하고 통이 큰 목표가 다시 세워졌다. 오랜 세월 조국의 대지를 넓히는 사업에 남모르게 진정을 바쳐온 국가경찰위원회 당일군을 비롯한 일군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지원물자를 알고 달려왔다. 도당위원회와 도점찰소의 일군들도 찾아와 신심과 용기를 북돋이주었다.

이에 고무된 기업소의 일군들은 작은 베텔과 절도를 편편하게 제방공사를 먼저 결속한 다음

1호방조제건설에 차수하였다. 종전의 계획과는 달리 두 풍사를 동시에 밀고나가기 위한 작전과 지원을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갔다.

석화지구와 안산지구, 접도지구에 력량이 분산배치되고 시공, 설비, 자재, 노동, 후방부문과 당, 근로단체의 능력있는 일군들을 현장지휘부가 조직되었으며 이동 수리기지도로 신속히 꾸려졌다.

파급한 팀체전이 벌어졌다.

건설자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며 모자라는 자재들을 해결

하기 위한 최영덕, 서현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발걸음을 더욱

밀리지 않고 분사업 소별, 직장별, 기내별, 풍성철사주의 경쟁

열등으로 온 건설장이 부글부글

끓었다.

한마더 굴진, 한마더 심기,

한왕 더 뛰기 량이 세 차례

벌어지고 높고낮은 밭파소리가

현숙지에 걸려들었다.

말그대로 철야적전이 벌어

졌다. 하지만 공사조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어려워졌다.

그 시각 파산, 장충, 다사, 보산, 석화, 토하간석지건설분사업소를 비롯한 종합기업소 모든

건설자들의 가슴속에 가렬한 전

화의 나날 조국의 한치땅을 퍼

로써 지켜싸운 영웅건설사들의

불의 군상이 우렷이 어려왔다.

불붙는 적의 화阱을 가슴으로

막고 팔다리를 부서지면 턱으로

중기압철을 놀려 적들을 쏘아들

히며 귀중한 이 땅의 한치한치를

수밖에 없던 일인가?

제작장과 방조제에서는 여기저기에 불우지가 생겨나 낮에도 밤에도 활활 타버렸다. 화물자동차운전사들은 기름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 연유탱크에 예열기

설치하고 견인선을 펼쳐걸었으며

솜옷까지 벗어 쇠워주었다.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게 적재함바닥에 설나루를 깎아주고 그때도 잘 떨어지지 않으면 글착과기바

지로 긁어주면서 순간도 공사속

수에 걸려들었다.

제작장과 방조제에서는 여기저기에 불우지가 생겨나 낮에도 밤에도 활활 타버렸다. 화물자동차운전사들은 기름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 연유탱크에 예열기

설치하고 견인선을 펼쳐걸었으며

솜옷까지 벗어 쇠워주었다.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게 적재함바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으면 글착과기바

지로 긁어주면서 순간도 공사속

수에 걸려들었다.

제작장과 방조제에서는 여기저기에 불우지가 생겨나 낮에도 밤에도 활활 타버렸다. 화물자동차운전사들은 기름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 연유탱크에 예열기

설치하고 견인선을 펼쳐걸었으며

솜옷까지 벗어 쇠워주었다.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게 적재함바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으면 글착과기바

지로 긁어주면서 순간도 공사속

수에 걸려들었다.

제작장과 방조제에서는 여기저에게 불우지가 생겨나 낮에도 밤에도 활활 타버렸다. 화물자동차운전사들은 기름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 연유탱크에 예열기

설치하고 견인선을 펼쳐걸었으며

솜옷까지 벗어 쇠워주었다.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게 적재함바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으면 글착과기바

지로 긁어주면서 순간도 공사속

수에 걸려들었다.

제작장과 방조제에서는 여기저에게 불우지가 생겨나 낮에도 밤에도 활활 타버렸다. 화물자동차운전사들은 기름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 연유탱크에 예열기

설치하고 견인선을 펼쳐걸었으며

솜옷까지 벗어 쇠워주었다.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게 적재함바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으면 글착과기바

지로 긁어주면서 순간도 공사속

수에 걸려들었다.

제작장과 방조제에서는 여기저에게 불우지가 생겨나 낮에도 밤에도 활활 타버렸다. 화물자동차운전사들은 기름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 연유탱크에 예열기

설치하고 견인선을 펼쳐걸었으며

솜옷까지 벗어 쇠워주었다.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게 적재함바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으면 글착과기바

지로 긁어주면서 순간도 공사속

수에 걸려들었다.

제작장과 방조제에서는 여기저에게 불우지가 생겨나 낮에도 밤에도 활활 타버렸다. 화물자동차운전사들은 기름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 연유탱크에 예열기

설치하고 견인선을 펼쳐걸었으며

솜옷까지 벗어 쇠워주었다.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게 적재함바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으면 글착과기바

지로 긁어주면서 순간도 공사속

수에 걸려들었다.

제작장과 방조제에서는 여기저에게 불우지가 생겨나 낮에도 밤에도 활활 타버렸다. 화물자동차운전사들은 기름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 연유탱크에 예열기

설치하고 견인선을 펼쳐걸었으며

솜옷까지 벗어 쇠워주었다.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게 적재함바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으면 글착과기바

지로 긁어주면서 순간도 공사속

수에 걸려들었다.

제작장과 방조제에서는 여기저에게 불우지가 생겨나 낮에도 밤에도 활활 타버렸다. 화물자동차운전사들은 기름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 연유탱크에 예열기

설치하고 견인선을 펼쳐걸었으며

솜옷까지 벗어 쇠워주었다.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게 적재함바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으면 글착과기바

지로 긁어주면서 순간도 공사속

수에 걸려들었다.

제작장과 방조제에서는 여기저에게 불우지가 생겨나 낮에도 밤에도 활활 타버렸다. 화물자동차운전사들은 기름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 연유탱크에 예열기

설치하고 견인선을 펼쳐걸었으며

솜옷까지 벗어 쇠워주었다.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게 적재함바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으면 글착과기바

지로 긁어주면서 순간도 공사속

수에 걸려들었다.

제작장과 방조제에서는 여기저에게 불우지가 생겨나 낮에도 밤에도 활활 타버렸다. 화물자동차운전사들은 기름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 연유탱크에 예열기

설치하고 견인선을 펼쳐걸었으며

솜옷까지 벗어 쇠워주었다.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게 적재함바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으면 글착과기바

지로 긁어주면서 순간도 공사속

수에 걸려들었다.

제작장과 방조제에서는 여기저에게 불우지가 생겨나 낮에도 밤에도 활활 타버렸다. 화물자동차운전사들은 기름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 연유탱크에 예열기

설치하고 견인선을 펼쳐걸었으며

솜옷까지 벗어 쇠워주었다.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게 적재함바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으면 글착과기바

지로 긁어주면서 순간도 공사속

수에 걸려들었다.

제작장과 방조제에서는 여기저에게 불우지가 생겨나 낮에도 밤에도 활활 타버렸다. 화물자동차운전사들은 기름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 연유탱크에 예열기

설치하고 견인선을 펼쳐걸었으며

솜옷까지 벗어 쇠워주었다.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게 적재함바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으면 글착과기바

지로 긁어주면서 순간도 공사속

수에 걸려들었다.

제작장과 방조제에서는 여기저에게 불우지가 생겨나 낮에도 밤에도 활활 타버렸다. 화물자동차운전사들은 기름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 연유탱크에 예열기

설치하고 견인선을 펼쳐걸었으며

솜옷까지 벗어 쇠워주었다.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게 적재함바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으면 글착과기바

지로 긁어주면서 순간도 공사속

수에 걸려들었다.

제작장과 방조제에서는 여기저에게 불우지가 생겨나 낮에도 밤에도 활활 타버렸다. 화물자동차운전사들은 기름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 연유탱크에 예열기

설치하고 견인선을 펼쳐걸었으며

솜옷까지 벗어 쇠워주었다.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게 적재함바

막돌과 흙이 얼어붙지 않으면 글착과기바

지로 긁어주면서 순간도 공사속

수에 걸려들었다.

제작장과 방조제에서는 여기저에게 불우지가 생겨나 낮에도 밤에도 활활 타버렸다. 화물자동차운전사들은 기름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 연유탱크에 예열기

설치하고 견인선을 펼쳐걸었으며

솜옷까지 벗어 쇠워주었다. 막돌과



